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출장기간 : 2024년 3월 22일 -4월 4일

출 장 지 : 영국(런던, 도버, 브라이튼, 이스트본)

출 장 자 :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글로벌 도시 내 형성된 다양한 이주민 거리 사례를 통해, 대전내 이주민거리 형성 가능성을 보고자 함
- 저출생과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사회들은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주 1.5세대, 2세대들의 창업과 지역 정착 가능성의 사례를 보고자 함

2. 출장기간 : 2024년 3월 22일 - 2024년 4월 4일

3. 출 장 지 : 영국(런던, 도버, 이스트본, 브라이튼)

4. 출 장 자 : 류유선

II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시간	도시	업무수행내용	비 고
3.22(금)	전일	런던	▷ 인천 -> 런던 OZ0521 12:25분 출발(기내식 2식 제공)	
3.23(토)	전일	런던	▷ 스타필드 이주민거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남아시아 커뮤니티 - ‘이주와 다양성 박물관’ 방문	
3.24(일)	전일	런던	▷ 브릭레인 이주민거리 -여성예술가 팀 갤러리 방문 ▷ 캄덴타운 이주민거리	
3.25(월)	전일	런던	▷ 포토벨리 로드 이주민 거리 - 카라비안 이주민거리(첼시, 켄싱턴, 노팅힐)	
3.26(화)	전일	런던	▷ 차이나타운, 소호거리, burlington arcade 등 ▷ 리든홀마켓	

			- 이스트 런던 사원 방문	
3.27(수)	오전	런던	▷ 런던→ 도버	
	오후	도버	▷ 도버 이주민지원 센터	
3.28(목)	전일	도버	▷ 도버 이주민 거리 ▷ 도버 immigration removal centre방문	
3.29(금)	오전	도버	▷ 도버→이스트본	
	오후	이스트본	▷ 이스트본 청년이주민 카페	
3.30(토)	전일	이스트본	▷ 이주민센터 ▷ family contact centre ▷ 이주민 거리	
3.31(일)	오전	이스트본	▷ 이스트본→브라이튼	
	오후	브라이튼	▷ 브라이튼 청년이주민 마켓	
4.1(월)	전일	브라이튼	▷ Global social club, young womens group 등 ▷ 이주민 센터 및 이주민 거리	
4.2(화)	전일	브라이튼	▷ 이주민 센터 및 이주민 거리	
4.3(수)	전일	이동	▷ 브라이튼→런던→인천 OZ0522 20:40분 출발(기내식 2식 제공) 4월 4일 17:45 도착	

1. 다양한 이주민 거리 형성 사례

1) 전통시장 주변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주민 거리

○ 글로벌도시라 불리는 런던은 이주민 유입 역사에 따라 특정 국가 및 지역 이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장소가 생기면서 그곳에 이주민들의 거주지와 상가가 생기기시작했고, 커뮤니티도 발생하기 시작함

○ 현재 영국에는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서 이주한 주민들과 인근 유럽국가에서 이주한 이들이 함께 모여살고, 최근에는 도버를 통해 이주하는 난민들도 증가하고 있음

○ 이주민들은 전통시장인근인 스타필드, 브릭레인, 캄덴타운, 포토벨리, 차이나타운 등을 중심에 밀집해 거주하고, 이들 시장에 이주민들의 창업도 활기차게 이뤄지고 있음

- 전통시장은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데, 여러 국가를 대표하는 먹거리와 물품들, 빈티지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주민들이 밀집해 거주 혹은 창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리는 런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힙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힙한 거리에 창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음

-런던의 이주민거리의 경우, 스피탈필즈, 브릭레인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인들이 주를 이루고, 중국과 일본, 한국 출신의 청년들의 창업도 많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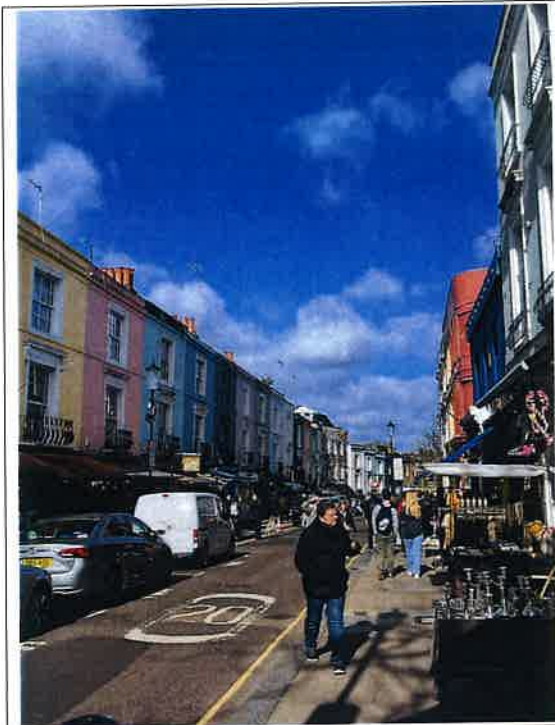
-포토벨리이주민거리는 카라비안 이주민과 인도 중심의 이주민들이 창업활동을 주를 이루고 있고, 캄덴타운은 인도물품이 주를 이루지만 음식은 전 세계음식을 청년들이 판매하고 있음

○ 포토벨리이주민거리

-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시장으로 빈티지가 주요 물품인데 최근 여성, 유색인,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음

- ladbroke grove 역을 기점으로 포토벨리는 나뉘게 되는데, 지하철 아래부터 시작되는 마켓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작은 상점들과 노점상이 복잡하게 자리잡혀 있음. 지하철역과 가까운 마켓은, 동양여성, 인도계남녀, 흑인이 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 마켓을 벗어나면 실제 양옆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들 사이의 포토벨리거리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꽃, 도자기, 페인팅, 야채, 주얼리, 의류, 빈티지 등 거의 모든 것이 판매되고 있음
- 상점과 노점상이 음식은 젊은 유색인들이 주로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 포토벨리의 음식은 이국적인 향료와 식품이 주를 이루는 것이 많고, 청년여성들의 유기농을 주제로한 식당도 증가하고 있음







○ 브릭레인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자의 거리로 매우 낡았지만, 최근 런던 청년들에게 가장 힙한 지역으로 알려짐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양조장을 개조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한국음식을 만들어판매하는 청년식당, 한인의류 및 공예품을 판매하는 청년여성들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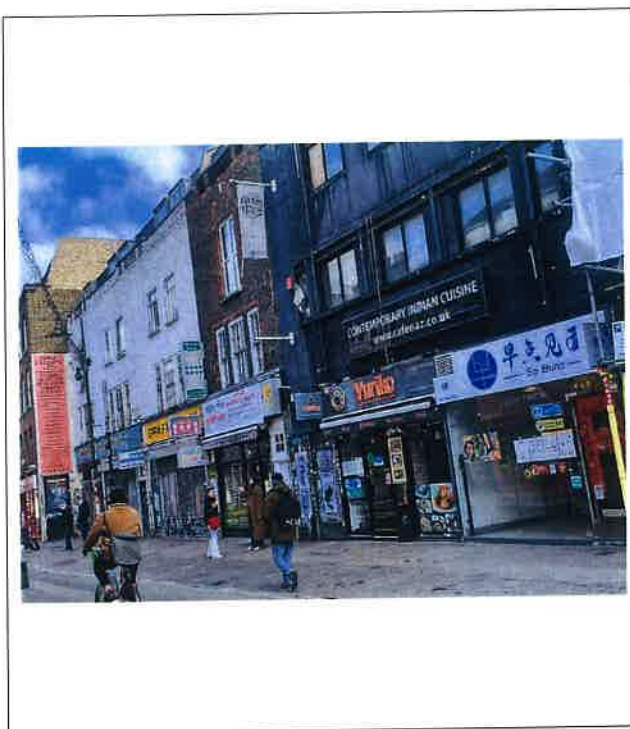
-런던동부의 빈민가였던 이 지역은 빈티지상점과 다양한 그래피티가 골목을 채우고 있음. 예전 맥주양조장 건물을 시장으로 재구조화했음.

- 방글라데시 이주민의 창업이 많고,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인의 창업도 많아지고 있음

- 이지역의 명물은 베이글가게와 다크초콜렛 가게인데, 이들이 상점이라면 주말이면 거리 가판대를 운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요일마다 문을 옴

- 브릭레인 이주민 거리를 포함한 이 지역은 쇼디치라고 불리는데 젊은 아티스트들이 몰려있고, 빅뱅의 지디가 ‘빼딱하게’ 뮤직비디오를 찍어 유명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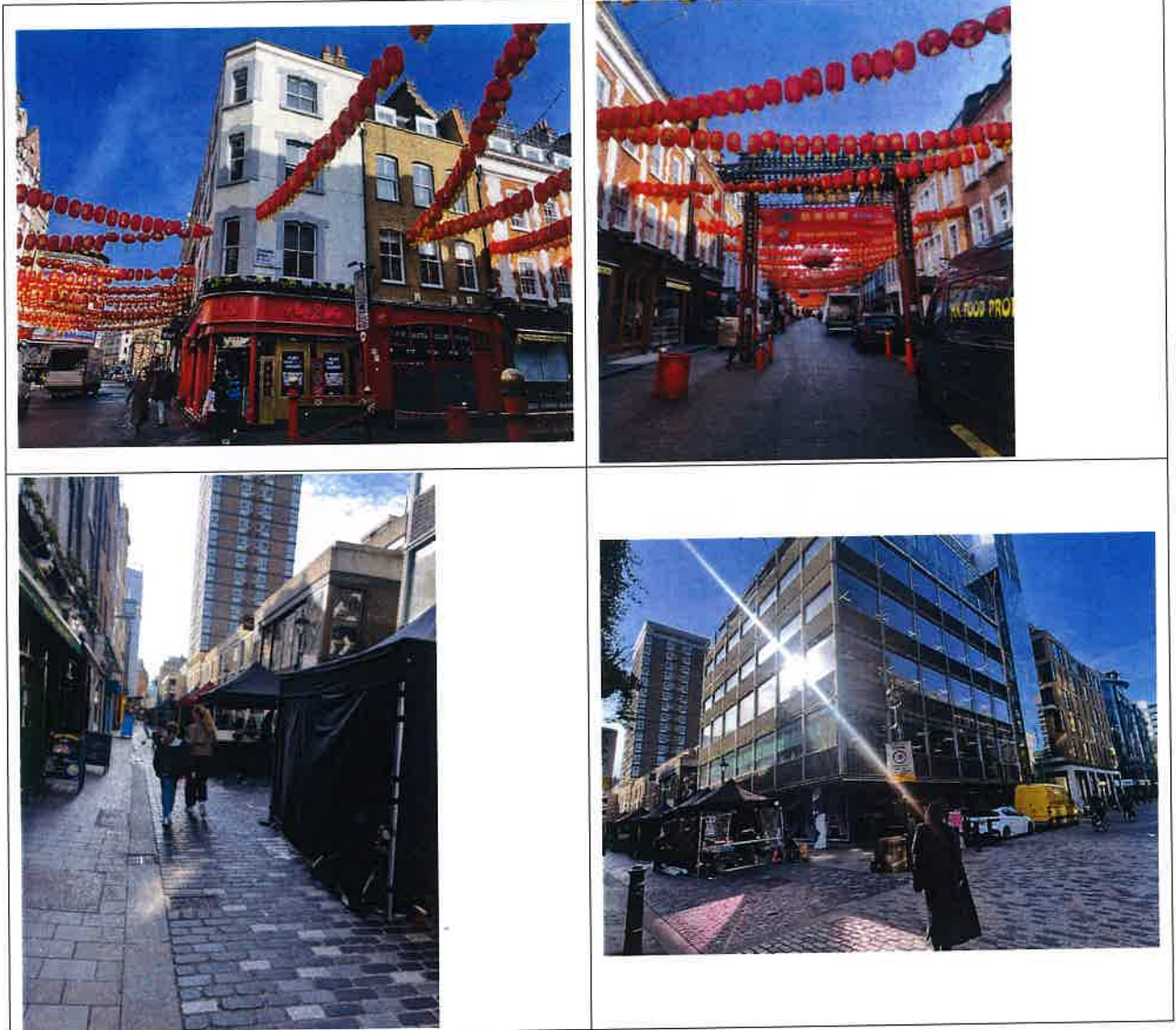
○ 닐 스트리트

- 17세기의 흔적을 갖고 있는 코벤트 가든과 가까운 곳으로 이 지역은 다양한 거리 공연이 특색임
- 런던의 구도심인 닐 스트리트는 구도심의 특색답게 아기자기한 골목에 카페들이 줄지어 있음
- 이미 정형화된 지역으로 새로움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차이나타운과 소호거리

- 한인타운이 그레이트런던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반면, 차이나타운은 런던의 가장 변화한 곳에 자리잡고 있음
- 차이나타운은 음식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른 새벽부터 많은 트럭들이 거리에 와서 음식점에 식재료를 배달하고 있음. 식재료배달은 백인들이고 물건을 받는 이들은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임
- 차이나타운 옆의 소호거리 가장 유행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

샵, 팝업스토어, 그리고 펍과 레스토랑 등이 밀집해 있음. 가장 핫한 지역 가운데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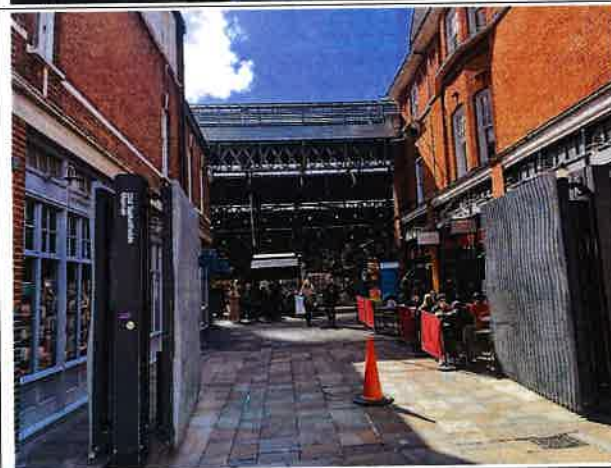


○ 스피탈필즈

- 이주민과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전통을 따른다거나, 누구를 참조한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새로운 의, 식,주의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음
- 1600년대 시작된 스피탈필즈 시장은 육류, 조류, 채소 등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이였지만 지금은 친환경이라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재료 구매와 음식을 함께하는 사교의 공간으로 이 곳을 만들어가고 있음
-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자주 찾는 이곳은 연주회, 콘서트, 축제와 전시회 등이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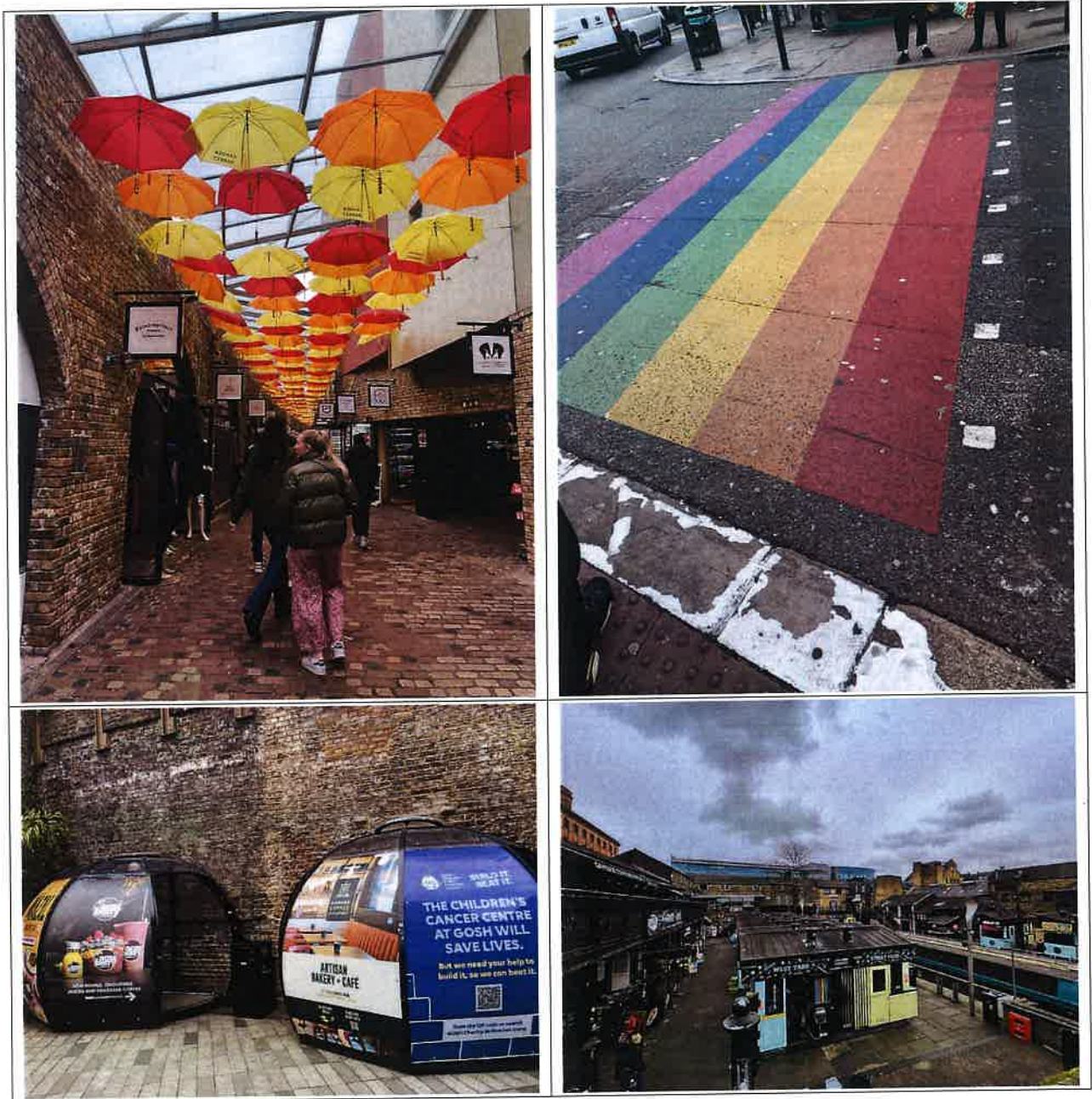
되는 곳으로, 이런 예술활동이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예술작품도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사진과 엽서, 프린트가 많이 팔리고 있음

-3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에 젊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문화가 주변 일대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있음



○ 캄뎀타운

- 90년대에는 시장 주변은 주거지로써 각광받지 못했으나, 도시재생 이후, 시장주변은 거주지로 활기를 찾고 있음
- 마구간을 개조한 캄뎀시장은 말을 상징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의 의류, 식당, 카페, 악세사리, 빈티지샵, 공예를 중심으로 런던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알려짐





2. 이주하는 한국 청년 및 한국인 창업

1) 청년인터뷰

○ A씨, 29세 서울출신

- 대학졸업, 취업 후 퇴사, 어학연수 후 귀국, 다시 영국 취업
- 어학연수를 하면서 자연과 여유로움에 만족스럽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면서 우울감을 난생처음 가져봄
- 다시 런던에 와서 취업을 함. 현재 6개월째, 다시 돌아갈 예정임
- 해외 친구들은 ‘갬이어’를 갖고 인생을 고민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었음. 이런 것이 부러움

○ B씨, 26세 서울출신

- 석사를 마치기까지 한번도 휴학을 하거나 쉬어본 적이 없음. 이번에 여행을 통해 리프레쉬의 기간을 가지려함. 박사를 고민중임
- 런던 이후 파리로 가서 여행을 계속할 예정임

○ C씨, 87년생, 부산출신

대학졸업후, 고향에서 운이 좋게 패션관련회사에 취업해서 열정있게 일을 했음. 일한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한만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서울본사에서 일함

총 14년을 일한 후 승진에서 누락된 이후, 회사와 조직, 자신의 경력에 대한 회의를 갖고 우울에 빠짐. 번아웃과 우울로 고생하다가 직장을 그만둠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는 “네가 여기서 일해서 승진해야지, 지금 나이에 나가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것 같냐” 라며 저주를 퍼부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결심을 더하게 됨

타회사에 합격하여 해외지사로 가는 기회였음. 미국으로 취업을 하려했으나 취업비자심사에서 일년에 3번을 떨어지고 대신에 동유럽(체코)로 옴. 2024년 1월에 체코에 왔는데 아직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3달에 한번씩 인근 나라에 나갔다와야함.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비자취득에 있어서 회사가 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비자문제로 고민하고 있음

체코에서 일하고 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한국으로 와야할 수도 있음

○ 남성 20대 2명, 30세 1명, 모두 서울출신

-유럽국가(국가 밝히고 싶지 않음)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음. 졸업후 한국에 와서 의사시험을 보고 인턴과 레지턴트에 지원해야함

-유럽에서 의대를 졸업할 경우 의사면허증이 나오지만, 유럽보다는 한국에 들어갈 생각임

2) 창업 한인

○ 한인민박 1명, 한국식당 2명

신분을 밝히길 꺼림

자영업의 경우, 자본 및 안정적 비자가 필요함

3명 모두 40대로 영국에 머물다가 창업을 시작함

3명 모두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을 선택하여 창업함

모두 국적은 한국으로, 영주권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은퇴후 한국으로 귀환을 고려중인데,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음. 코로나 시기 사회가 완전히 멈추게 되면서 특히 국경이 닫히면서 관광객을 상대하는 자

영업자들은 전멸하게 되었음. 이 당시 영국도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에어비앤비가 유행했으나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시작되면서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사업은 줄고, 해외관광객 대상의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 이 시기 한국출신의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이 아니라 여러개의 사업을 함께하면서 위험을 줄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음

대부분이 음식점, 민박, 에어비앤비 관리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하고 있음

○ 워홀 및 이외 다른 방법을 통한 이주와 취업

-대부분은 합법적인 워홀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워홀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6개월 무비자 입국이라는 영국의 출입국정책변경에 따라 노동비자없이 영국에 들어와 한인경제에 속한 곳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음

-다만 이들은 노동비자가 없기 때문에 한인경제에 속한 곳에서만 노동을 하고,급여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

-이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더 필요해 보임. 국가간 국경정책, 노동정책, 이민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전략과 방법으로 이동중인 한국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정동을 살펴보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이주민의 유입과 이동, 경제

○ 경제활력으로써 이주민 vs 사회문제로써 이주민

- 전통적으로 이주민이 많이 유입되는 영국이지만,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이주민의 형태, 난민들이 해안가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함

-영국내 이주민도버->이스트본->브라이튼->런던으로 이어지는 경로

-이주민의 이동과 초국적 경제의 활성화 : 이주민, 특히 이제 이주민보다는 난민이 주요한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주거는 호텔에 배정했으나 여러 갈등이 있었고, 현재는 과거 군대시설 등에 나눠관리하기도 하고 있음

-고령화된 영국의 상황에서 이주민이 주요한 경제활동주체로 등장하고 있음

-이런 배경에서 노마드, 헬조선, 글로벌, 트렌드, 이국적, 고용조건, 여행, 낭만, 우울 등 여러 키워드를 가진 한국의 청년들도 이 행렬에 함께 하고 있음

-이들은 난민은 아니지만, 위홀, 유학, 여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한국과 해외 어딘가에서 조율해나가고 있음.

○ 도버

-도버는 유럽대륙으로가는 관문으로, 프랑스와의 거리는 34킬로미터에 불과함. 보트 피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영국은 도버에 2002년 immigration removal centre를 세우고, 여기에 난민신청자 및 보트피플을 감금했음

-센터는 도버시내에서 떨어진 곳으로, 센터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함. 마치 외부의 침입을 막기위해 성을 쌓고 성문 앞에 큰 강을 만들 듯이, 같은 형태로 그런 지형에 센터를 만들었음

-감옥보다 심하다는 지역사회의 주민 및 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졌는데,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한다는 주장이었음. 특히 난민신청자들은 1년동안 일을 할수없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음

-sompier를 중심으로 지역의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센터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2015년 센터는 문을 닫게 되었음

-센터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이후, 청년이주민들의 지역정착 및 법률자문서비스 등을 계속하고 있음

<난민들을 감금했던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주민들의 반발로 현재는 문을 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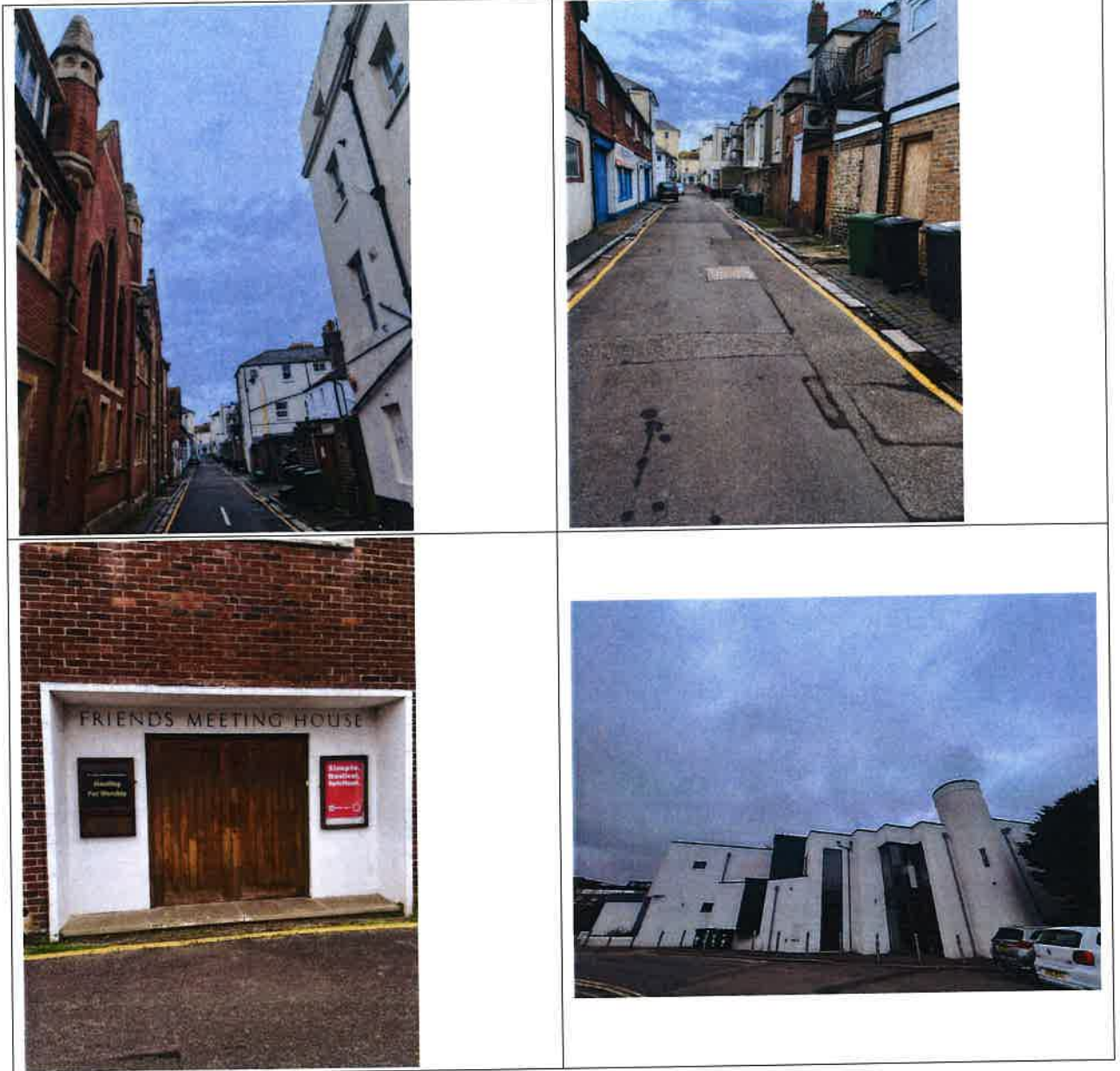




○ 이스트본

- 이슬람성당 및 불교센터, 퀘이커 등 다양한 종교들이 시내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음
- 불교는 불교자체보다는 명상을 중심으로 ‘심리적 평화’의 상태로 인식되면서 서양인들에게 확산되고 있음

<이주민들이 밀집한 거리에는 이슬람성당, 불교센터, 그리스정교회 등 다양한 종교시설과 식당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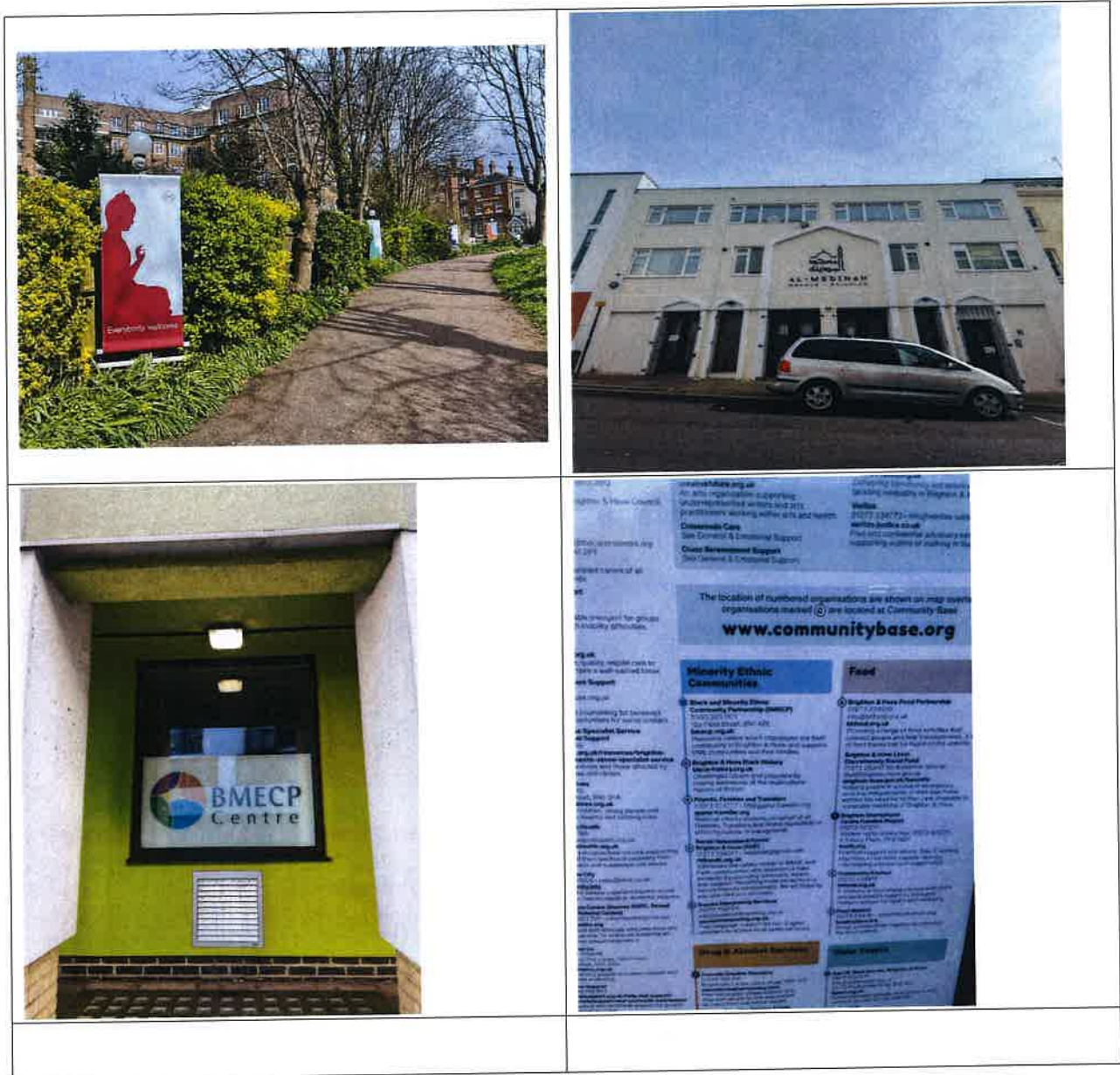


○ 브라이튼

-관광도시인 브라이튼은 런던과의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많이 이들이 찾고 있고, 특히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차이니스 센터, 이슬람포럼 등 주요한 이주민 커뮤니티도 많음

-이슬람모스크와 불교센터(명상센터)로 확산되고 있음



Women

Brighton Women's Centre
01273 698036
22 Richmond Place, BN2 1HA
womenscentre.org.uk
Women's support, 50+ groups, counselling, physiotherapy, music/rock/leisure worker, accommodation support, supporting women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asis Project
01273 666970
11 Richmond Place, BN2 1HA
oasisproject.org.uk
Support for women and families with current or former drug or alcohol problems.

WIFE
01273 672622
wifeuk.org.uk
Offering education and recovery support services to those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abuse in Brighton & Hove.

Sex Workers' Outreach Project
Moth-Fri: 01273 675025
Tues: 07801 379758
swopproject.org.uk/swop-access/
swop-contact
Confidential service for women who work in the sex industry. Call/text/Whatsapp for advice, information or support.

Survivors' Network
01273 202360
5a Pavilion Buildings, BN1 1EF
survivorsnetwork.org.uk
Helpline, counselling, advocacy and support for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and abuse.

The Saturn C Assault Referral Centre
01273 633777
saturncentre.org.uk
Police and individual one-to-one support.

Together Co
01273 775688
Projects This Side of the River: togetherco.org
Connecting people to improve wellbeing.

Victim Support
0208 500 9111
victimsupport.org.uk
Pract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those affected by crime.

Men

CALM - Campaign Living Miserably
0800 541 99 58
thecalmspace.net
Movement space for men and those affected.

Mankind
01273 478640
mankind.org.uk
Free online advice and support for men.

Men's Advice Line
0808 601 0527
mensadviceuk.org
Support for men in crisis.

Young People

U18s Support Pkg
01273 212121
www.brightonyoung.org.uk
Free, confidential, confidential & anonymous support for young people aged 13-18.

YMCA Domestic Group
Youth Advice Centre (YAC)
01273 424411
01273 424411
www.yac.org.uk/yac-uk
Support and advice for young people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Young People's Centre (YPC)
01273 424411
100 St James Street, BN1 1AB
www.brightonyoung.org.uk/youthcentre/ypc
Can offer one-to-one support and advice for young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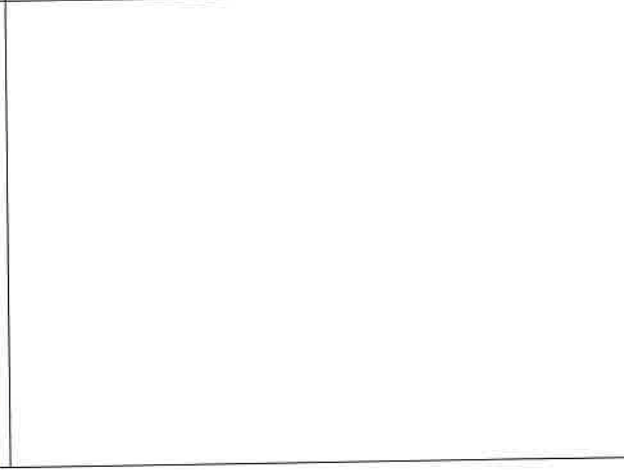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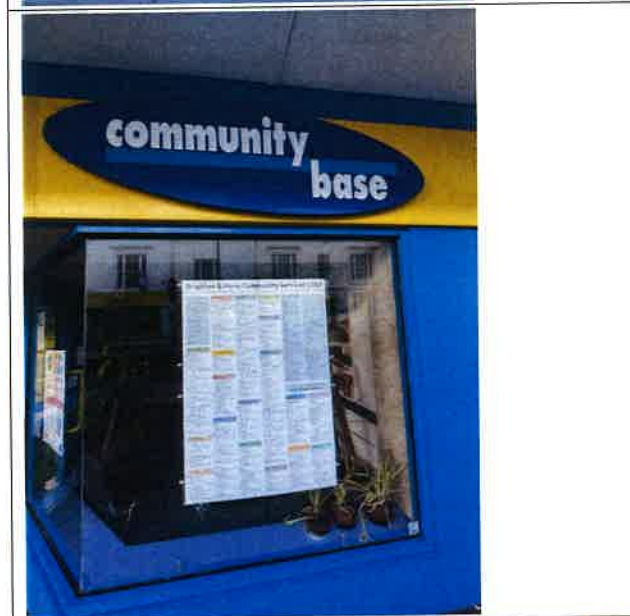
Children

Brighton Homebound Centre - Family Project
01273 212121
Brighton Homebound Centre, 27-29 St James Street, BN1 1AB
www.brightonhomebound.org.uk
Family Information Service
01273 212121
www.brightonhomebound.org.uk
Brighton Homebound Centre provides a free, confidential, confidential & anonymous support service for young people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Parent Carers' Club
01273 212121
www.brightonhomebound.org.uk
Support for parents and carers who are struggling with their ow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erseus Project
01273 212121
www.brightonhomebound.org.uk
Support for young people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Respectability
01273 212121
www.brightonhomebound.org.uk
Support for young people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V

출장성과(또는 기대효과)

○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유입은 고령화되는 영국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유지해주는 주된 동기가 되고 있음.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는 시장 및 이주민 커뮤니티, 거리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재생산되면서 영국의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음. 이들 이주민 거리의 형성과 유지 모델은 대전역 인근 원도심에 생겨나는 다양한 식당과 가게, 그리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우송대학교, 배재대학교 인근의 이주민 밀집 거리를 어떻게 계획해야할 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한국의 청년들은 워홀, 유학, 단기어학연수, 여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 인터뷰에서 만난 이들은 영국 및 유럽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과 한국으로 귀환하는 것, 혹은 아메리카로 재이주를 하는 3개의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청년들의 이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 공무출장에서 이뤄진 한번씩의 인터뷰로는 이들에 향후계획과 이주의 정동을 깊이있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청년들의 이주욕구와 이동의 목적, 방향성을 파악함으로써 대전 청년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음. 향후 더 다양한, 이주하는 청년인터뷰를 통해 대전 청년정책의 방향을 세울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함